

『우주센터』 선정부지 발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는 우주개발의 기반시설이 되는 『우주센터』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동경127.30도, 북위 34.26도)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총 1백50만평 규모의 부지에 5만평의 시설이 들어설 『우주센터』에는 1천3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우주센터』 건설부지의 선정은 99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우주센터건설자문위원회'가 수행한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의 11개 지역에 대한 입지조건 평가를 기초로 하여 선정하였다. 우주개발은 통신, 방송, 환경, 국방, 국토관리 등 경제·사회·과학기술·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가위상면에서도 수행해야 할 전략사업으로 『우주센터』의 건설은 우리나라가 우주 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과기부는 앞으로 『우주센터』에 우주박물관, 우주체험관 등을 건설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과학기술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차세대형 6백W급 다이오드 고체레이저 개발 성공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장인순) 양자광학기술개발분야 이종민박사팀은 기존의 가공용 레이저보다 고효율이면서 50배 이상의 정밀도를 향상시킨 평균출력 6백W급의 다이오드 고체레이저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레이저는 장치의 크기를 소형화시키면서도 레이저의 수명이 기존에 비해 월등히 길기 때문에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플래쉬 램프형 Nd:YAG 레이저 및 CO₂ 레이저 등 기존의 레이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시스템의 산업화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제휴하여 실용화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차세대형 고체레이저는 자동차산업이나 반도체산업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존의 가공용 레이저를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로써 효율성과 정밀도에서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대체는 물론 연간 1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시장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53차 세계통계대회 개최
한국통계학회

한국통계학회(회장 안윤기)는 오는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COEX 국제회의장에서 제53차 세계통계대회를 개최한다. 통계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통계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 국가 및 국제기구의 통계책임자와 학계, 연구기관의 종사자 등 약 2천여명(외국인: 약 1천5백명)이 모여서 통계의 모든 분야를 다루게 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개회식 및 총회, 약 2백50편의 초청논문회의, 1백64개 주제, 약 6백편의 기고논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행사 중 하루를 '인터넷 데이'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환영 리셉션, 민속공연, 환송 만찬과 통계서적출판사, 통계패키지개발업체, 컴퓨터 관련업체 등이 참석하는 전시회도 있을 예정이다.

한·IAEA 아시아 원자력 안전 워크숍 개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아시아지역 6개국(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의 원자력 안전규제요원 17명에 대한 '안전해석기법 및 전산코드운용에 관한 워크숍'이 한·IAEA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김세중)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표준형 원전을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13명), IAEA 전문가(5명)로 구성된 공동 강사진이 원자력발전소의 핵심부품인 원자로와 관련 설비 시설에 대한 안전해석 및 컴퓨터를 이용한 코드운용을 교육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가 국산화한 한국표준형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한국표준형 원전의 해외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제15기 전통과학대학 강좌 개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관 별자리 여행

관대학과는 달리 우리 과학유산에 대한 각종 연구에서 밝혀진 겨레과학의 원리, 창의성, 우수성 등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시청각교재를 이용하여 교육한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승구)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유구한 세월동안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일상생활의 경험으로부터 일구어온 겨레 과학기술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교육시키는 전통과학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예술적인 면을 강조하는 여타의 박물관

다. 특히 강좌를 통하여 배웠던 내용을 과학문화재 탐방을 통하여 직접 그 원리를 찾아보는 매우 흥미로운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접수 및 문의-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www.science.go.kr, 042-861-0496)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종합정보연구기관 출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의 통합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제막식에서 좌로부터 박병권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조영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박주천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 박치영 의원, 박호군 KIST 원장이 현판 제막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의 통합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월 2일 오후에 홍릉 본원에서 현판 제막식과 초대 조영화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은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박병권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박주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KISTI직원 등 2백 50명이 참석하였다.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는 99년 각각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그 관리업무가 이관된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체제 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통합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통합되었다. 97